

12월 22일(금) TRO 판결에 대한 교회의 입장

노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인 필그림 성도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기에 4년여 전부터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동성애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안수를 주는 미국장로교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부한미노회는 교회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산을 가지고 다른 개혁신교단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이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자 교회의 리더를 상대로 (교회와 리더를 분리하려고) 성경에 위배된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약속한 1차 방어를 하였으나 지난 목요일 판사의 판결로 교회 리더들에 대한 TRO (접근금지명령)가 승인되어 더 이상 담임목사와 당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교회의 건물과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28일(목)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당회는 12월 22일(금) 임시당회를 통해 항소 등 더 이상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정신을 계승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목회실 당회 및 교구장회의를 통해서도 한 뜻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공동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주일 3부예배(오후 12시)후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당회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다른 예배 장소를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12월 말부터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으며 곧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만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출애굽’(Exodus)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새로운 선교적 비전을 향해 함께 담대히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필그림교회 목회실, 당회, 교구장 일동.